

## ‘기생충’ 美 골든글로브 첫 수상

韓 영화 최초 ‘외국어영화상’



봉준호 감독이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의 베벌리힐호텔에서 열린 77회 연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외국어영화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영화상을 거머쥐었다.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와 더불어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며 아카데미 전 초전으로 불린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는 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호텔에서 열린 올해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기생충’을 선정해 발표했다.

‘기생충’은 최우수 외국어영화상(베스트 모션픽처-포린 랭귀지) 부문에서 스페인 출신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를 비롯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프랑스), ‘더 페어웰’(중국계·미국), ‘레미제라블’(프랑스) 등 경쟁한 작품들과의 경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콘텐츠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며, 후보 지명 자체도 최초였다.

‘기생충’의 골든글로브상 수상은 칸영화제 작품상인 ‘황금종려상’ 수상 쾌거에 이어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계의 높은 벽을 넘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 2020년 프랜차이즈시장은?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올해 프랜차이즈시장은 초저가와 동종&이종 아이템간 복합화, 리모델링 창업 전쟁이 예고된다.

2019년의 많은 프랜차이즈 관련 악재가 전반적 경기 하락과 함께 본사와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성 하락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의 대폭 상승과 업종간 과열 경쟁, 가맹사업법의 변경, 전 업종에 걸친 가격과괴 현상의 증가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대비 열악한 수익성을 나타냈으며 그로인한 경합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됐다.

또한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본사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으며, 가맹점과 예비창업자들의 권리와 안정창업 기준이 강화되는 2020년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2020년 전망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극심한 차별적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상황 악화로 인한 가격과괴, 저가, 배달형, 생활지원업종, e커머스관련업 등의 약진이 예상되며, 반대로 시설창업종이나, 중관여적 아이템, 아웃도어중심의 취미관련 업종의 약진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업의 주요 핵심 트렌드는 5가지로 예견할 수 있다.

첫째, 가격과괴(price destruction)와 무한리필(infinite refill) 시장의 성

장을 꼽을 수 있다. 전 업종에 걸쳐 본사들의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가격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 기존 운영하는 아이템도 신상품을 초 저가격적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특히 외식업 위주의 업종에서는 이미 한계가격 이하의 판매가를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가맹점들의 고통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 업종에 걸친 복합화(Convergence)를 예상할 수 있다. 2020년은 소비자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의 냉각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호객적 요소를 현장에서 구현해야만 매출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업종에 걸쳐 동종간의 아이템이나 이종간아이템간의 복합화가 많은 운영 형태로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나홀로 소비족(alone consumption)과 밀레니얼세대(millennial generation)를 향한 마케팅전략 강화를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중 52.8%가 1~2인가구이며 그 중 21.7%가 1인가구다. 또한 점점 학교나 직장으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그들이 새로운 소비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소위 ‘소확행’을 즐기는 세대의 중심적 소비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리모델링(Remodeling) 창업의 귀환을 꼽을 수 있다. 2019년의 창업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음에 따라 많은 본사나 가맹점들이 수익성적

측면과 상생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기였다. 2020년에는 어려웠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었던 아이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트렌드에 맞춘 아이템으로 업종전환이 본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증가할 것이다. 창업자측면에서도 가급적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창업을 우선 고려하는 기조가 나타남으로써 기존 업종을 인수 후 보강하는 방법의 창업인 리모델링 창업이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본사의 노력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의 공유와 교육사업이라 단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도에 강화된 가맹법에 의해 본사의 갑질이나 독선적인 일방통행식 관리는 법적 규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있는 몇몇 법안은 더욱 본사의 자정과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일방적 관리형태나 갑질, 오너리스크 등의 폐해는 줄어들 것이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한 브랜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참으로 우려와 기대를 함께 공존하는 2020년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이다. 좀더 현실적 분석과 상생을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오히려 올해가 브랜드의 전체성 확립과 우수성을 공고히 실현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브랜드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 학박사)



HDC 신라면세점이 2020년 새해를 맞아 하여 지난 3일, 용산복지재단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HDC신라면세점 김희연 공동대표(오른쪽)가 성장한 용산구청장(왼쪽)에게 저소득층 자녀 지원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신라아파트면세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지난해 20주년을 기념해 고객 참여로 조성한 크리스마스 시즌 기금 총 2억원을 전국 20곳의 지역사회 NGO 및 기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2020년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협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스타벅스커피



보령중보재단이 지난 2~3일 1박 2일 동안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종로구지역아동센터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보령중보재단은 지역아동센터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보령중보재단

## KB금융그룹, 피겨 꿈나무 위해 장학금

유망주 후원 통한 피겨발전 취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5000만원

KB금융그룹은 지난 5일 경기도의 정부 실내빙상장에서 막을 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0(제74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에서 한국 피겨 꿈나무들을 위한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5000만원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은 ‘유소년 피겨 유망주 후원을 통한 피겨 발전’이라는 취지로 2015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난 5일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에서 박철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왼쪽)과 정문철 KB금융지주 홍보브랜드총괄 상무(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에는 10명의 남녀 유망주(남2, 여8)가 장학금을 받았다.

이번 장학금 수여자는 ‘2019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와 이번에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0’ 등의 주요 대회 성적을 고려해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선정하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피겨 스케이팅을 포함해 동계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다”며 “KB금융과 함께 성장한 피겨 여왕 김연아처럼 이 장학금이 피겨 유망주들이 국제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인사

- ◆교보생명 ◇본부장 △법인1 신경우 △법인2 조길홍 ◇FP지원단장 △강동 김일승 △부천 성시현 △수원중앙 황선중 △진주 정태호 △부산 조상호 △포항 김중호 △구미 윤주을 △대구중앙 최봉규 △목포 김병진 △사업단장 △서울TF P 이기창 △팀장 △티직연금마케팅 최우성
- ◆대신증권 ◇신규선임 실장 △홍효실 윤태림
- ◆메드팩토 △부사장 육동인 △전무 황선진
- ◆KBS N △스포츠국장 이효중 △스포츠제작팀장 강익권 △스포츠제작팀 수석 지승준
- ◆한국지멘스 ◇전무 승진 △월 빌물 ◇상무 승진 △한병영 △김진국 △고세진 ◇이사 승진 △하성근 △장희돈 △이순학 △이호진 △정화진 △

- 안혁기 △김정렬 △최진석 △정정현 △민혁기
- ◆오늘경제 △편집국 금융부 겸 부동산부 부국장 이병석 △산업부 부국장 정수남
- ◆컨슈머타임스 ◇승진 △편집국장 김현우 △경영기획국 마케팅팀 사업담당 김재훈
- ◆서울파이낸스 ◇편집국 △김무종 부국장
- ◆이투뉴스 △부사장/대기자 체재용 △편집국장 채덕중

### 부음

- ▲이봉희(전 KBS 해설위원실장·전 미주한국방송 사장)씨 별세, 김경희씨 남편상, 이학승(PN공년 전략감사팀장)·이나승씨 부친상 = 6일 오전 7시40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8일 오전 7시30분. ☎ 031-781-6725
- ▲김애교씨 별세, 문재희(삼현종합 회장)씨 부인상, 문승용(삼현종합 대표이사)·문준용(삼현종합 상무)씨 모친상, 정희재·김현주씨 시모상 = 5일 저녁 11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7일 오전 11시. ☎ 010-9986-6085
- ▲강경미 씨 별세, 박위규(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팀장)씨 부인상 = 6일 오전 3시, 경성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선영. ☎ 055-750-8653, 010-5529-5473
- ▲홍정표(CJ헬로비전 전 경남총국장) 별세 = 6일 오전 7시 42분, 진해연세세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8일 오전. ☎ 055-548-7759